

# 김태년, 변창흠 경질론 선긋기...“의원 조사에 외부인사 포함”

### “변창흠 장관 거취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 300명·가족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제안 野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찰 연루’ 의혹 겨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도주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그는 ‘셀프조사’ 한계에 대한 지적에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 조사하자”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조

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면서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을 변 장관이 취임 후 발표했고, 국민의 기대감도 크다. 2·4 대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 ‘공급대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의 신뢰성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직원들 당사자 투기 조사 결과가 발표

될 거고, 또한 지금까지 가족동의서를 받아 가족들까지 다 조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경찰)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는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점 의혹 없게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당에서 (공직자 투기 방지) 제도 시스템도 완비할 거다.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기들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의 LH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라며 “LH를 개혁해야겠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을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도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만나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직계존비속 부동산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여야 합의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셀프조사’가 될 거라는 우려에는 “국회의원의 재산관계를 살살이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자당 양의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강도높게 조사하는 거로 안다. 조사결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4월, 5월에도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밖에 김 대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의 국정원 사찰연루 의혹을 겨냥했다. 김 대행은 “박형준 홍보비서관실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이) 사찰자료를 정리했고 홍보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문건에 돼 있는 거로 안다”라며 박

형준 후보는 ‘문건’ 본 적 없다고 해명하는 거 같은데, 국정원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거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소병철 “순천 경전철 의견 수렴 누락됐다” 국토부 해명요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0일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으며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고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10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시민 의견 수렴이 누락된 경위를 따졌다. 소 의원은 손 차관에게 “도심 지상부를 통과해 소음과 분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을 통과시키면서도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행정절차를 누락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이재명 “민주당 갈등 부추기는 지상최대 이간작전 시작”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지상최대 이간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임 날인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자리 배정을 놓고 이 지사 측과 이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보면 멸망한 나라가 이간계에 넘어가 망한 경우가 많다. 36계중 이간계가 비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높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자기 민주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재명 탈당에 의한 4자구도가 펼쳐지면 필승이라는 허망한 뇌피셜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정신을 잃지 않는다”며 “허위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사실에 기초한 품격있는 비판이 아닌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

## 김두관, 5·18정신 기리며 2박3일 광주·전남 일정 시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열사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5·18열사 참배로 광주·전남 2박3일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했다. 참배단 앞에 선 김 의원은 헌화·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김 의원은 참연문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고(故) 김태홍 전 국회의원 묘지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장으로 5·18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박관현 열사의 묘소를 찾아 묵념했다. 참배에 앞서 김 의원은 민주묘지 방문목에 “오월 광주정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원은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의장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기본 자산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12일에는 광주MBC ‘시사본색’에 출연하는 등 광주 언론을 통해 호남시민들과 인사할 예정이며 13일에는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한다. 최윤희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